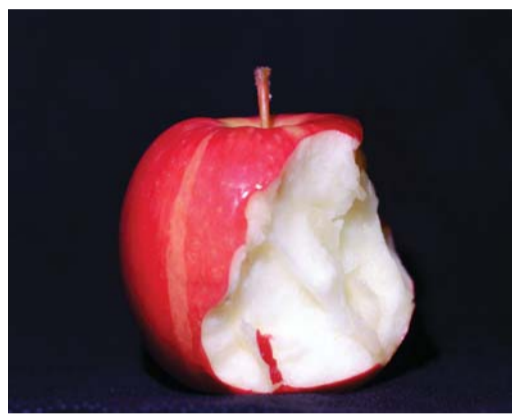


2020 **꿈** 을 쏘다 <6> 미디어아티스트 임용현

# “단순한 볼거리는 거부...자유로운 작품에 재미 느꼈으면”

미디어아티스트 임용현(38)작가와와의 인터뷰는 예정보다 2주 늦게 진행됐다. 중국 다저우시가 새로 문을 연 동굴 미술관 개관 기념전에 초대받은 그는 연초 중국에 머물렀다. 2018년 광주시립미술관 북경 레지던시에 참여했던 임작가는 지금도 북경 송장지구에 작업실을 두고 양국을 오가며 활동을 펼치고 있다.

PD 등 활동...영국서 뒤늦게 공부 콜라 소재 'Delight' 홍콩전 판매 을 시립미술관 국제레지던시 선정 그룹 'BIGFOOT' 활동도 병행



'Apple consume'

임 작가는 올해 광주시립미술관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선정돼 1년간 광주중외공원 스튜디오에 머물며 작업하게 된다. 임 작가는 경력이 특이하다. 광주의 여타 미디어 아트 작가들과 달리 학부에서 정통으로 미술을 공부하지 않았다. 호남대 다매체 영상학과를 졸업한 그는 단편영화 등을 제작하고 서울에서 방송국 PD로 근무했다. 자신의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했지만 '안전히 내 것'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고 2009년부터 개인 작업을 조금씩 진행했다.

"미스코리아 출신들의 모인인 '녹원회' 봉사활동을 촬영하기 위해 캄보디아에 간 적이 있어요. 당시 회원 중 한분이 작가였죠. 작업실에 놀러가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 사진전을 해보라고 격려했어요. 제 일에 대해 고민하는 걸 보고 그림 공부를 제대로 해서 작가의 길을 가 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당시 개인 작업에 대한 목마름이 컸던 때라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정말 제대로 미술 공부를 해 볼까 싶었고 고민이 시작됐다.

"그 때 미술교육의 흐름이 저와 맞지 않다고 봤어요. 다시 대학을 가면 미술의 기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 가르칠 건데 전 장적적 생각, 사고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다 재학 출신들이 우선시 되는 게 아닌가하는 편견 아닌 편견도 있었어요. 아예 그런 편견이 존재하지 않는 곳, 나의 생각과 가능성을 봐주는 곳으로 가자 마음 먹었죠."

결론은 외국행(行)이었다. 여행을 좋아해 대학교 때부터 수차례 해외여행을 했던 경험이 있고, 일단 생존영어는 되니 부딪혀보자 싶었다. 당시 막 결혼한 상태였지만 과감하게 2010년 영국으로 떠났고 런던예술대학(Universyt of the Arts London), 첼시 아트앤 디자인 대학(Chelsea College of Art And Design)에서 공부했다.

"인터넷을 서핑하며 저에게 맞는 학교를 찾으려

애썼죠. 작업 환경도 따져 보구요. 제가 공부한 곳은 나의 학업 계획서가 바로 커리큘럼이 되고, 나의 작업을 완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학교였어요. 학교 내에 해당 테크니션이 없으면 학교 밖에서 데려와 주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디다."

2012년 귀국 후 작업을 병행하며 기업 홍보팀 PD로 활동하던 그는 '오후 6시까지 회사에 매여 있는' 상황을 견디기 어려웠고, 아내의 이해 덕에 2016년 광주로 돌아왔다. 시골에서 농사지으며 작업에 매진하려했던 그에게 행운도 따랐다.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미디어아트 레지던시 선정 작가로 입주하게 되면서 생각보다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다.

그는 레지던시에서 개인 작업 뿐 아니라, 마음에 맞는 동료들을 만나 미디어아트 그룹 'BIGFOOT'을 결성했다. 사운드 아티스트, 조형 작가 등과의 협업이 자연스럽게 진행됐고 울산 태화강 설치미술제 등에 참여하며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있다. 팀 활동의 기준은 뚜렷했다. 대중과 예술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에는 적극 참여한다. 단순한 볼거리는 거부한다.



미디어아티스트 임용현 작가는 프로젝트맵핑 등 다양한 작업을 진행중이다.

북경 레지던시는 큰 도움이 됐다. 집중하게되면서 작업량이 많아졌고, 결과물도 좋았다. 현지 유명 큐레이터, 작가와의 교류가 이어지면서 798예술지구 화랑과 사천미술관에서 전시회도 열었다.

그의 작품 중 눈길을 끌었던 건 2018년 광주시립미술관 미디어 아트전에 등장했던, 코카콜라를 소재로 한 'Delight'였다. 이 작품은 홍콩 개인전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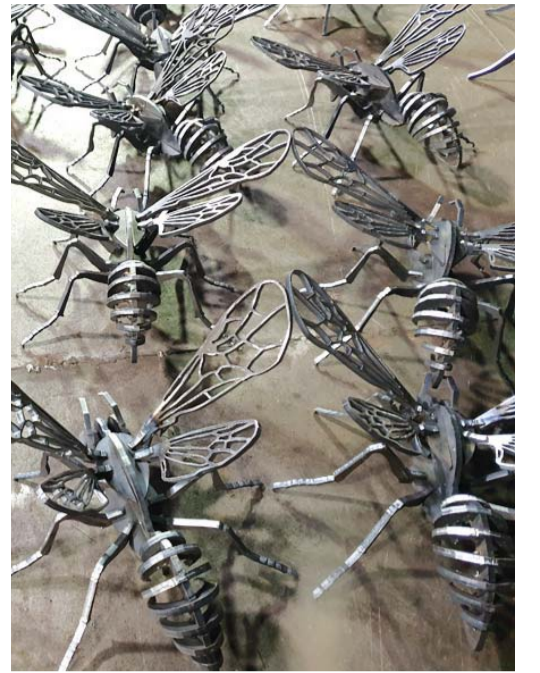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많지만 순기능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작품입니다. 미디어가 주는 환타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즐거움에 대해 이야기했죠. 우연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모든 게 즉각적이고, 휴대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어서 상상력을 제한해 버릴 수 있어요. 콜라로부터 연상되는 다양한 이미지를 제공해 상상의 기회를 넓혀보자는 생각이었죠."

그의 작품 속에서 탈과 해가 한 공간안에 존재한다. 자신이 사용하는 전자기기 기판을 오브제로 활용해 도시의 변천과 욕망, 미디어의 과도한 소비

등을 싱글 채널, 프로젝트맵핑, 홀로그램 등 다양한 장치를 통해 전달한다.

"내 머릿 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표현하는 게 재미있어요. 미디어 아트는 특성상 기술적인 작업도 많이 필요한데 술한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영상 작업이 추가되기는 하지만 재료적 실험과 연구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흥미가 많아서 카메라를 만든다거나 손으로 직접 만드는 수공예적 작업들도 하죠.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온 건 어떤 절실함이었던 것 같아요. 학부에서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게 오히려 기존 미술이 가졌던 형식들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근간이 된 것 같아요. 또 단편영화 작업, 광고 등 다양한 작업을 해왔던 것도 도움이 되구요. 사람들이 제 작품 앞에서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중국 창사 미디어아트페스티벌 및 국제 청년포럼에 광주 청년 대표작가로 참가했고 현재 중국 개인전을 조율중인 임 작가는 국제레지던시에 입주한 만큼 다양한 교류가 이뤄지도록 열심히 작업할 생각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채집'

## 철에 생명력을... '채집' 전

방우송 초대전 30일까지 주안미술관

현대를 살아가는 균종을 상징하는 수많은 벌들이 전시장 바닥에 놓여 있다. 철로 만들어진 작품들은, 소재가 주는 단단함과 강직함을 그대로 담고 있다. 벽면에 부착된 상대적으로 가벼운 느낌의 나비는 새로운 세계로의 진입을 이야기하는 듯하다.

방우송 작가 초대전이 30일까지 주안미술관(광주시 동구 제봉로 197)에서 열린다. '채집'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방 작가는 종교,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수집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재구성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조선대 조소과를 거쳐 뉴욕시립대학교에서 졸업생 중 최고의 작품을 만든 졸업생에게 수여하는 'Fabri Award'를 수상한 방 작가는 10여년만에 갖는 개인전에서 '철'을 근간으로 다양한 작업들을 소개한다.

방 작가가 이번 초대전에서 작품 재료로 다양하게 활용한 '철'에는 사연이 있다. 아내 이종순씨가 순천에서 운영하고 있는 쉼안스틸에서 쓰고 남은 철을 재가공해 만든 작품들이다. 방 작가는 벽난로 제조 후 남은 철을 기본 소재로, 레이저 가공과 용접 과정을 거쳐 새로운 창조 작업을 통해 철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작업을 진행했다. 산업과 예술의 콜라보레이션인 셈이다.

현대인의 관심인 '건강'에 대한 이야기는 영양제와 양은 도시락, 밀랍 등을 활용한 '일용할 양식' 시리즈를 통해 들려주며 성경과 불상이 어우러진 '해우소' 작품은 유쾌하다. 화려하고 다양한 색감의 아크릴 페인팅 작품의 '풍경 시리즈' 액자로 활용한 '철 프레임'도 눈길을 끈다. 철 이외에도 유리, 병, 못, 성경책 등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 작품을 전시중이며 '소통'을 주제로 한 영상 작업도 만날 수 있다.

방 작가는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인 작품을 철로 작업해 선보이는 전시회를 구성 중이다. 예원예술대 교수, 한성스틸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장, (사)한국 콘텐트학회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문화누리카드' 9만원 지원... 다음달 1일부터 발급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개인당 1만 원인 상된 9만 원이 지원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1일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3월부터는 전국 주민센터에서 2020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5000여 개 가맹점에서

서 이용 가능하며 국립국악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50%, 놀이동산 50%, 영화 25% 등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4. 12. 31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발급된다.

올해는 복권기금 1033억 원과 지방비 434억 원 등 총 1467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보다 개인당 1만 원 인상된 9만 원을 지원한다. 문화예술 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신규 발급자가 아니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소유한 개인은 전화 한 통으로 지원금을 재충전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에서 전화

해 소지하고 있는 문화누리카드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인증 후 지원금이 충전된다. 카드의 유효기간이 2020년까지인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에도 "각종 연회 행사"는 **벤틀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메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